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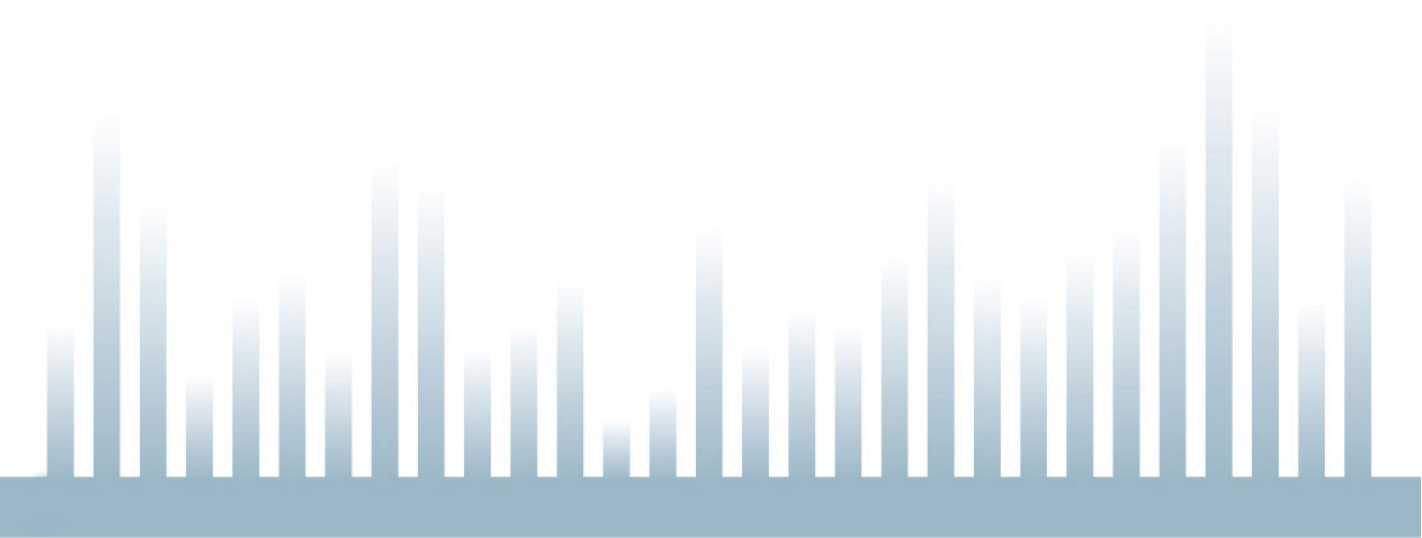


생생리포트

■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I. 한국 관광 1번지, 명동거리

II. 화장품 매출액 1순위 자치구, 중구

III.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

IV. 글을 마치며

부록.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통계표

* 본 내용은 서울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서울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I. 한국 관광 1번지, 명동거리

서울시에는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길, 종로 인사동 문화거리, 홍대거리, 이태원거리와 같이 ‘길’ 과 ‘거리’ 로 불리는 명소들이 있다. 그 중 명동거리는 서울의 특화거리 중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로 꼽힌다. 역사적으로 명동은 조선시대의 주택지에서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 때 상업지역으로 발전하고 광복을 기점으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후 의류, 제화가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구로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찾는 쇼핑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서울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던 명동거리는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길과 같은 새로운 패션 중심지들이 등장하면서 잠시 특징이 퇴색되었었다. 그러나 현재 ‘화장품 거리’ 라고 불릴 정도로 화장품 사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명소이자 쇼핑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명동거리의 중심 산업인 화장품 사업체들의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을 비교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서울의 상업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온 명동거리의 현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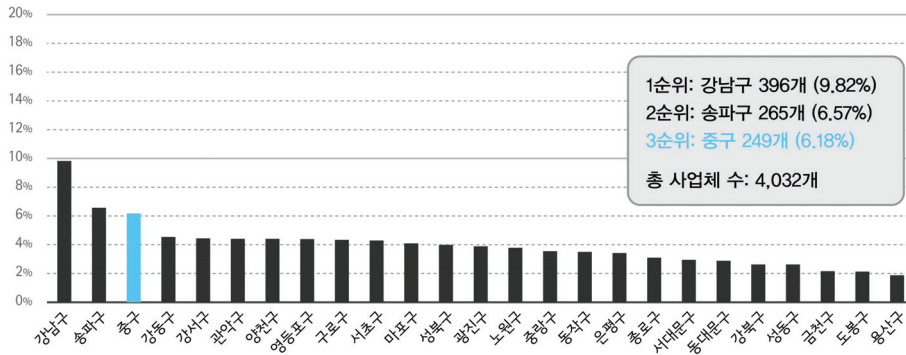
II.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1순위 자치구, 중구

1.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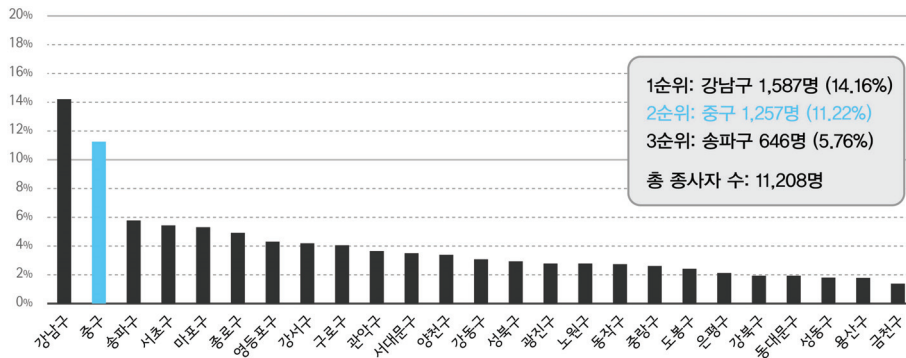
2011년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총 사업체 수는 4,032개이다. [그림1]을 보면 1순위는 강남구가 396개로 전체의 9.82%, 2순위는 송파구가 265개로 6.57%, 3순위는 중구가 249개로 6.18%를 차지한다. 23순위인 송파구와 중구의 사업체 수는 16개 차이로 적은 차이를 보인다. 3순위까지 제외한 자치구들은 사업체 수의 비율이 비슷한 편이다.

2.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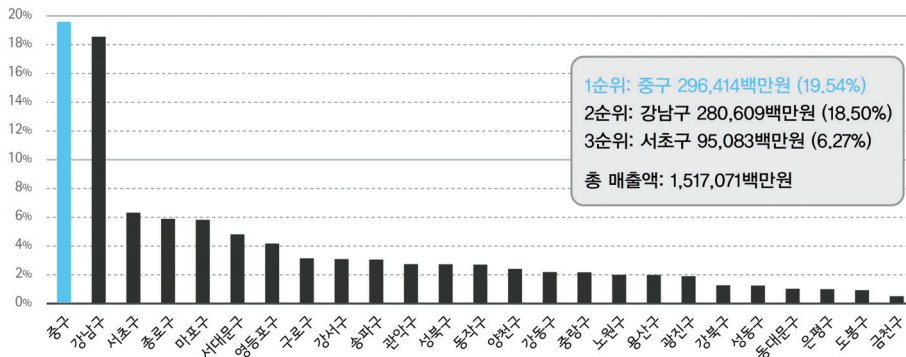
2011년 서울시에서 화장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11,208명이다. [그림2]를 보면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1순위는 강남구로 전체의 14.16%인 1,587명이 종사하고 있다. 2순위는 중구가 1,257명으로 11.22%, 3순위는 송파구가 646명으로 5.76%를 차지한다. 12순위인 강남구와 중구는 330명으로 적은 차이를 보이는 반면, 23순위인 중구와 송파구는 2배 가까이 되는 611명 차이로 큰 격차를 보인다.



[그림 1]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수의 비율



[그림 2]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종사자 수의 비율



[그림 3]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의 비율

3.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2011년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의 전체 매출액은 1,517,071백만원이다. [그림3]을 보면 1순위는 중구로 전체 매출액의 19.54%인 296,414백만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순위는 강남구로 18.50%인 280,609백만원, 3순위는 서초구로 6.27%인 95,083백만원이다. 12순위 매출액을 합치면 전체의 38.04%로 화장품 소매업 중심지는 중구와 강남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의 비교를 통한 중구의 화장품 소매업 현황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수는 강남구가 396개로 1순위이고 중구는 249개로 3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수는 중구와 강남구가 147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구의 종사자 수는 자치구 중 2순위인 1,257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1.22%를 차지하고 1순위인 강남구와 330명이라는 적은 차이를 보인다. 매출액은 중구가 296,414백만원으로 1순위이며 2순위 강남구의 매출액인 280,609백만원 보다 15,805백만원 많다. 사업체 수는 중구가 3순위이지만 종사자 수가 크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중구에서의 화장품 산업이 가장 활발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관찰된다.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가 소규모 화장품 판매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II. 중구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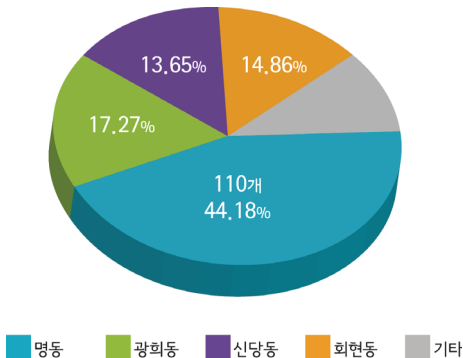
1. 중구 명동의 화장품 사업체 수와 매출액

2011년 사업체 자료 분석을 통해서 중구의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구 안에서도 10개의 행정구역 중 명동의 화장품 소매업 산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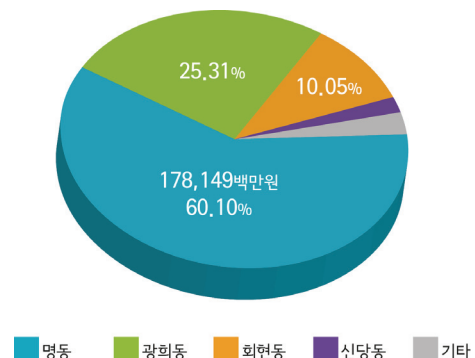
명동의 사업체 수는 110개로 중구의 전체 사업체 수 249개의 44.18%를 차지한다. 압도적으로 많은 화장품 가게들이 명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순위는 광희동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17.27%인 43개, 3순위는 신당동으로 14.86%인 37개가 있다.

매출액도 명동이 178,149백만원으로 전체 중구의 매출액의 대부분인 60.10%를 차지한다. 2순위는 광희동으로 전체 매출액의 25.31%인 75,014백만원, 3순위는 회현동으로

10.05%인 29,789백만원이다. 위치적으로 명동의 동쪽은 광희동, 서쪽은 회현동인 것을 보았을 때 명동 화장품 소규모 산업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집결되어 있는 명동, 광희동, 회현동의 매출액을 합치면 전체의 95.46%로 중구에서 발생하는 화장품 소매업 산업은 모두 명동을 기점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중구 동별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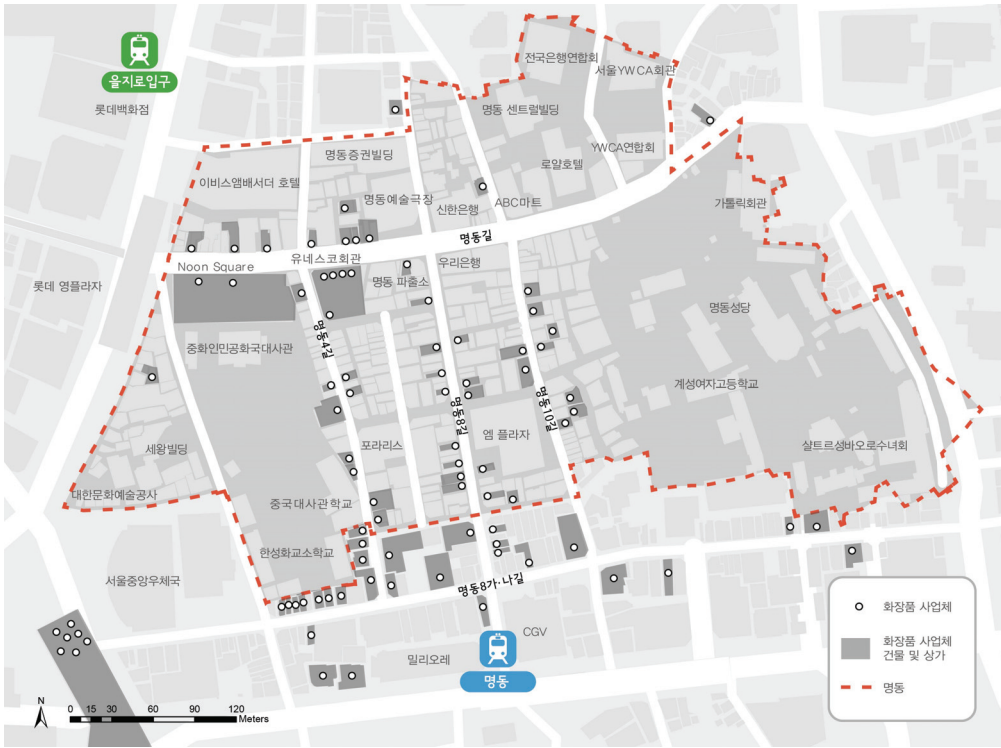
[그림 5] 중구 동별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비율

2. 명동 화장품 사업체들의 위치

자치구 중 매출액 1순위 중구의 행정구역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소규모 산업의 중심지는 명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동 화장품 사업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길을 화장품거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그림6]에서 빨간 점 선 안에 속한 구역이 명동 1동, 2동이지만 대체로 명동이라고 불리는 상권은 을지로입구역에서부터 명동역까지를 포함하는 범위이다. 명동의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로에 위치해 있다. 명동의 중심 길인 명동길과 명동 8길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조금 더 좁은 길인 명동 4길과 10길에도 화장품 사업체들이 많다. 을지로입구역 근방의 화장품 사업체 밀집 지역은 롯데백화점과 가까이 위치해있으며, 명동역과 가까운 사업체들은 밀리오레를 중심으로 퍼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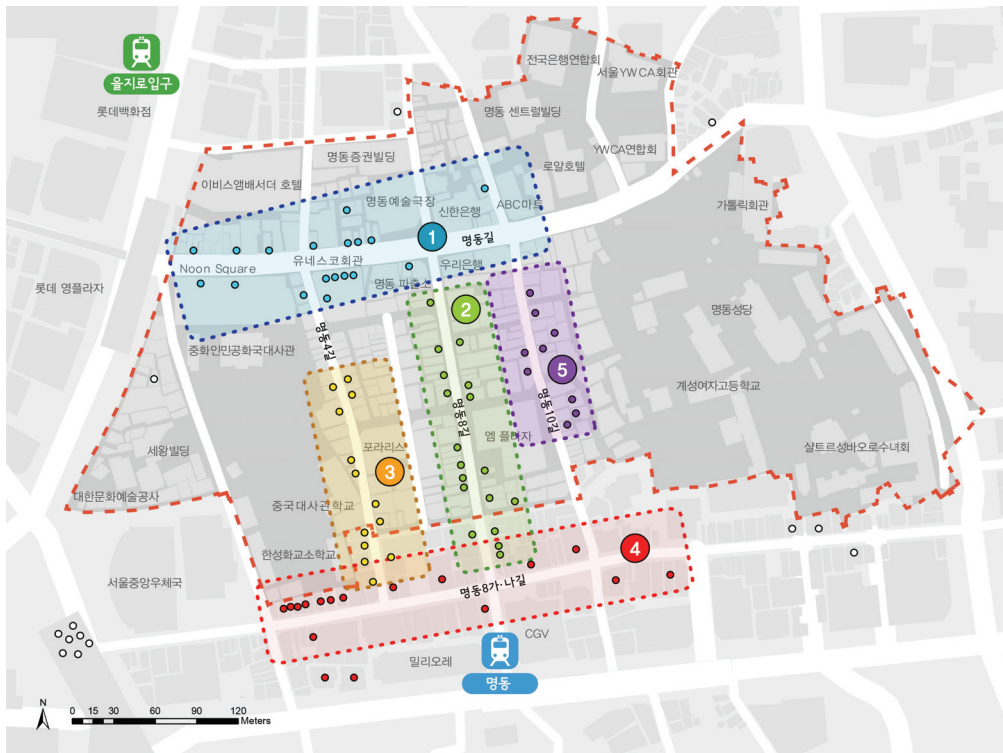
3. 명동의 화장품거리와 매출액

명동에서 화장품 사업체들이 밀집된 위치를 분석하면 5가지의 거리로 나눌 수 있다. 명동길, 명동4길, 명동8길, 명동10길, 명동8가나길이다. 이 길들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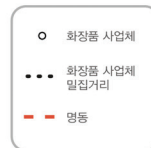
[그림 6] 명동 화장품 사업체 위치

명동길이 1순위로 53,879백만원이다. 명동길은 명동성당과 을지로입구역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을 연결하는 길로 관광객의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오히려 명동의 중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명동8길보다 높은 매출액이다. 2순위는 명동8길로 48,379백만원이다. 명동8길은 명동역과 명동길을 이어주는 중요한 명동거리의 중심 길이다. 명동8길은 화장품 사업체뿐 아니라 의류사업체들도 밀집되어 있다. 3순위는 명동4길로 30,787백만원이다. 명동4길은 좁은 보행자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편으로 관찰되었으며 작은 화장품 사업체들과 의류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다. 아마도 롯데백화점에서 나온 유동인구가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들어는 동선을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예상해본다. 4순위는 23,249백만원으로 명동역과 가까운 명동8가나길이다. 명동역과 가까워서 매출액이 클 것 같지만 오히려 을지로입구역과 가까운 명동길이 현저히 큰 액수를 보인다. 5순위는 명동10길로 13,383백만원이다. 명동10길도 명동4길과 같이 좁은 골목길로 주로 음식점들이 많은 편이며 음식점들 사이에 화장품 사업체들이 위치해있다.



화장품 사업체 밀집거리와 매출액

1 53,879백만원	2 48,379백만원	3 30,787백만원
4 23,249백만원	5 13,383백만원	



[그림 7] 명동 화장품거리의 구분과 매출액



[그림 8] 명동길의 현재 모습과 화장품 사업체



[그림 9] 명동10길의 현재 모습과 화장품 사업체



[그림 10] 명동4길의 현재 모습과 화장품 사업체



[그림 11] 명동10길 현재 모습과 화장품 사업체

IV. 글을 마치며

2011년 사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구의 화장품 소규모 사업체 매출액은 1순위로 296,414백만원, 사업체 수는 3순위로 249개, 종사자 수는 2순위로 1,257명이다. 사업체 수는 강남구와 송파구에 비해 적지만 매출액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 자치구 중 화장품 산업은 중구가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구에 속한 행정구역 중 명동 매출액이 전체의 60.10%인 178,149백만원이며 사업체 또한 전체개수의 44.18%인 110개가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화장품 산업은 명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장품거리라고 불릴만큼 큰 규모이다. 명동 화장품 가게들의 위치를 분석하면 을지로입구역과 명동성당을 이어주는 명동길, 명동역과 명동길을 이어주는 명동8길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특히 명동의 거리 중 명동길에 위치한 사업체 매출액의 총 액수가 53,879백만원으로 가장 높다.

역사적으로 서울의 상업중심지였던 명동거리는 예전에는 의류상업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화장품거리로 그 모습이 바뀌었다. 화장품 사업체 현장답사를 하면서 호객행위를 일 본어, 중국어와 같은 다른 언어로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화장품 가게에서 구경하고 구입하는 고객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관광객이 더 많아보였다. 이처럼 명동거리는 옛 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쇼핑중심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관광객 고객층이 많이 늘어났으며 화장품 산업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그 모습이 변했다. 역사적, 상업적, 장소적 스토리가 있는 명동거리가 서울 상업지구로서의 역할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다.

부록: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통계표

<표 1>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수

단위: 개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사업체 수	396	183	106	179	178	157	175	87
비율	9.82%	4.54%	2.63%	4.44%	4.41%	3.89%	4.34%	2.16%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153	86	116	141	165	119	173	106	161
3.79%	2.13%	2.88%	3.50%	4.09%	2.95%	4.29%	2.63%	3.99%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전체
265	178	177	76	138	125	249	143	4,032
6.57%	4.41%	4.39%	1.88%	3.42%	3.10%	6.18%	3.55%	100.00%

자료: 2011년 사업체조사집계자료

<표 2>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종사자 수

단위: 명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종사자 수	1,587	344	216	469	408	311	453	155
비율	14.16%	3.07%	1.93%	4.18%	3.64%	2.77%	4.04%	1.38%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311	270	216	306	593	391	607	202	328
2.77%	2.41%	1.93%	2.73%	5.29%	3.49%	5.42%	1.80%	2.93%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전체
646	379	481	200	238	549	1,257	291	11,208
5.76%	3.38%	4.29%	1.78%	2.12%	4.90%	11.22%	2.60%	100.00%

자료: 2011년 사업체조사집계자료

<표 3>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단위: 백만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자치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구로구
매출액	296,414	280,609	95,083	88,558	87,574	72,206	62,429	46,823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13순위	14순위	15순위	16순위	17순위
강서구	송파구	관악구	성북구	동작구	양천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46,131	45,676	40,771	40,632	40,303	35,797	32,409	32,097	29,588
18순위	19순위	20순위	21순위	22순위	23순위	24순위	25순위	전체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	서울시
29,475	28,126	18,571	18,244	14,809	14,444	13,391	6,911	1,517,071

자료: 2011년 사업체조사집계자료

<표 4> 중구 행정구역별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과 사업체 수

단위: 백만원, 개

행정구역명	매출액	비율	사업체 수	비율
명동	178,149	60.10%	110	44.18%
광희동	75,014	25.31%	43	17.27%
회현동	29,789	10.05%	34	13.65%
신당동	5,689	1.92%	37	14.86%
소공동	3,631	1.22%	9	3.61%
필동	2,076	0.70%	3	1.20%
장충동	1,641	0.55%	3	1.20%
을지로동	265	0.09%	5	2.01%
황학동	153	0.05%	3	1.20%
충림동	7	0.00%	2	0.80%
합계	296,414	100.00%	249	100.00%

자료: 201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고문헌

- 201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울시
- 2011년 사업체조사집계자료, 통계청